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Security Agents

김경식*, 김찬선**, 박영만***
호서대학교*, 경기대학교**, 여주대학***

Kim, Kyong-Sik*, Kim, Chan-sun**, Park, Young-Man***
Hoseo Univ*, Kyonggi Univ**,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09년 서울 소재 12개소 민간경비회사의 시큐리티 요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판단표집법을 이용하여 420부를 배부하였으며, 387명을 표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은 356명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참가빈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가기간은 직무스트레스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에 참가하면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며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참가기간과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감소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활동 참가와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된다. 넷째, 여가활동 참가의 빈도와 기간은 주관적 안녕감에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참가 빈도가 증가하면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되고, 참가기간이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감소되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주관적 안녕감은 증가된다. 사회적 지지 또한 증가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 역시 증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security agents. 356 (92%)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12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metropolitan Seoul. The conclusion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reflects the direct influence, and period by participating in the job stres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reported more negative affect, in other words, Job Stress is reduced,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Second, job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as a parameter to subjective well-being and participation in the period, in other words, subjective well-being is decreased by the more get job stress. Third, social support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that have no relationship, In other words,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by the more get social support. Fourth, frequency and duration of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to subjective well-being. increasing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activities make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period makes that job stress is reduced, job stress reduction make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and increasing the social support makes that subjective well-being is increased.

I. 서론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현대인들은 직무의 획일화 및 단순화, 정신적 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간소외와 사회적응력 상실 등의 심각한 병리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이러한 병리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여가활동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 되면서 일반인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2].

과거의 여가활동은 노동 후 남은 시간인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신체적 자유 활동으로서 소속 특권층의 문화활동으로 여기어져왔다. 그러나 최근의 여가활동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통한 정신적·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일으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있어서 능동적인 여가 활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5].

시큐리티 요원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 재산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근무의 특성상 내적·외적인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4].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장 내의 상사, 동료 등의 인적관계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저임금과 승진기회의 감소 등 직무 및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에 직무의 불규칙한 시간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로 여가 활동참가의 저하와 이로 인한 삶의 질의 향상과 주관적 안녕감을 누릴 수 없다. 즉, 여가활동 참가의 제약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여가에 대한 인식과 불만족을 느끼며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1]. 이렇듯 시큐리티 요원들은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와 피로 등의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이러한 여가활동의 제약은 시큐리티 요원들의 복지적 측면과 주관적 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1]. 즉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 참가는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아실현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에도 기여한다 하겠다. 이러한 여가활동 참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 요원이 지닌 근무에서의 환경적, 업무적 특성

상 여가활동 참가의 기회가 일반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10]은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지각하여 요구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을 해석하고 요구조건에 성공적으로 대처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로서 측정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정서적, 평가적인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12].

개인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시큐리티 요원들의 여가활동 참가를 통해 개인적 성취감, 만족감등을 고취시키며 사회에 대한 자신감 또는 자신의 존재감 내지는 소속감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과 사회 공동체적 의식과 지지가 높이며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심리적인 반응으로 신체활동으로부터 경험되는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쾌한 감정이나 도취감, 만족감[9] 등으로 불안이 제거되는 개인적 자아실현, 성취감, 몰입으로 인한 생활에 대한 결과라 하겠다.

시큐리티 요원은 여가활동 참가를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유지 및 건강회복을 가져오고, 이러한 신체적인 안정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어 자신이 속한 직장에 적응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8]. 자신의 역할에 효율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규명함으로써 여가활동 참가에 대한 중요성과 시큐리티 분야의 경험적 자료의 축적과 학문적 가치를 형성함에 있다. 또한 여가활동 참가로 시큐리티 요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큐리티 분야의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이들 변수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서울 소재 시큐리티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지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을 서울로 제한을 둔 이유는 큰 업체와 시큐리티의 사회적 수요가 비교적 많고, 지방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인원은 총 42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로서 3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 업체에 30명씩 총 420부를 배부하여 387명의 표본을 회수 하여 최종분석에 356부를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직무스트레스 설문지는 김태근[3]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총 1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설문지는 이경선[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총 21개 문항으로 이용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 설문지는 안명환[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연구 성격에 맞게 수정하여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 설문지에 대한 예비검사를 통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구성타당도(construct)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설문지는 총 19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을 제거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의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alpha = .577 \sim \alpha = .834$ 로 나타났다. 조직특성 스트레스 요인을 제외한 3개요인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 설문지는 총 21개 문항에서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alpha = .840, \alpha = .948$, 주관적안녕감 설문지는 총 19개 문항에서 Cronbach's α 값은 $\alpha = .907$ 로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판단표지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여 시큐리티 요원에게 배부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해당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자나 관리자의 협조를 얻은 다음 재직하고 있는 시큐리티 요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극단치(outlier)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입력된 자료처리는 SPSSWIN 16.0 Version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시큐리티 여가활동 참가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경로분석(path analysis)등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 1)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특성

표 1.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
	역할 스트레스	보상경력개발 스트레스	직무특성 스트레스	조직특성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웃의 사회적지지	가족의 사회적지지	직장동료의 사회적지지	
여가활동 빈도	-.145	-.024	.010	-.004	-.110	-.101	.048	.009	.187*
여가활동 기간	-.147	-.106	-.064	-.108	-.117	-.176*	.061	-.012	.055
여가활동 강도	.046	-.082	.194*	.107	.031	-.045	-.074	.063	-.095
R ²	.052	.021	.038	.020	.031	.051	.021	.004	.054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강도($\beta = .194$)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중 이웃의 사회적지지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기간($\beta = -.176$)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빈도($\beta = .187$)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특성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비율은 전체 변량중 약 3.8%, 사회적지지 중 이웃의 사회적지지는 약 5.1%, 주관적 안녕감은 약 5.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강도가 높을 수록 직무특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여가활동 참가 기간에 따라 이웃의 사회적지지는 낮아지며, 여가활동 참가 빈도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직무특성 스트레스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beta = -.243$)에,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beta = -.218$)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전체변량중 약 14.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2. 시큐리티 요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주관적 안녕감
역할 스트레스	.032
보상경력개발 스트레스	-.143
직무특성 스트레스	-.243**
조직특성 스트레스	.053
대인관계 스트레스	-.218*
R ²	.146

이러한 결과는 직무특성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큐리티 요원의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는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 사회적지지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beta = .328$)에, 직장동료의 사회적지지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beta = .46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큐리티 요원의 사회적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비율은 전체변량중 약 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사회적지지와 직장동료의 사회적지지가 높을 수록 주관적 안녕감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시큐리티 요원의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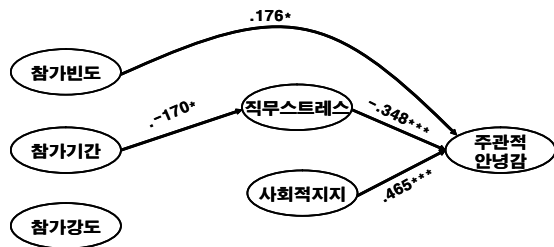
독립변수	주관적 안녕감
이웃의 사회적지지	.010
가족의 사회적지지	.328***
직장동료의 사회적지지	.463***
R ²	.270

4)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분석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빈도($\beta = .176$), 직무스트레스($\beta = -.348$) 그리고 사회적지지($\beta = .465$)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주관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약 34.1%를 설명해 주고 있다. 참가기간($\beta = -.170$)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설명력은 직무스트레스 전체 변량의 약 5%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은 [표 4]의 결과를 경로 모형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표 4.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주관적 안녕감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참가빈도	.176*	-.094	-.047
참가기간	.044	-.170*	-.105
참가강도	-.048	.093	-.034
직무스트레스	-.348***	—	—
사회적지지	.465***	—	—
R ²	.341	.050	.017



▶▶ 그림 1. 여가활동 참가와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모형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활동 참가 빈도($\beta = .176$)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참가기간($\beta = -.170$)은 직무스트레스($\beta = .348$)를 통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지지($\beta = -.465$)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참가빈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가기간은 직무스트레스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가활동에 참가하면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사회적지지가 높아지며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된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참가기간과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감소한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활동 참가와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된다.

넷째, 여가활동 참가의 빈도와 기간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참가 빈도가 증가하면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되고, 참가기간이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감소되며,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주관적 안녕감은 증가된다. 사회적지지 또한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 역시 증가된다.

■ 참고 문헌 ■

- [1] 김정식, 김평수, 김찬선(2007) “민간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생활체육 참가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7권, 제12호, pp. 167-178.
- [2] 김영일(1998) “직장인의 사회체육활동 몰입과 직무스트레스·직무만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태근(2002) “스포츠조직체의 주축풍토 및 조직내 역할지각이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 박영진, 안황권(2006)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제1호, pp. 239-248.
- [5] 방영훈(2001)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여가만족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안명환(1998) “신체적활동과 심리적 행복감: 인지적 성서 상재 측정치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 298-304
- [7] 이경선(2005)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 지지 고독감 및 사회관계망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8] 이수완, 김철원(2000) “교사의 여가활동참여유형, 직무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5권, 제1호, pp. 133-146.
- [9] 이후춘(2004) “볼링 참여자의 인지된 자유감 및 심리

적 행복감의 관계” 한신대학교 대학원 특수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10] Mc Graith, J. E. Stres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co:Kand McNally.
- [11] Parker, S. R,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NY,: Pantheon Books, Incs, 1976.
- [12]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as a Buffer Against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pp. 145-159.